



**여경협 전북, 노인복지시설 장수사진 촬영 봉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성요셉동산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전북지회 나눔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며 촬영을 도왔다. 회원들은 촬영 전 단정한 복장과 자연스러운 표정 연출을 도와 어르신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날 촬영한 장수사진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며, 사진 촬영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소장이 회장은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에서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여성경제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세대 간 정을 잇는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 나눔동아리장은 "장수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16일 장수청소년꿈터달빛에서 장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운영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EBS 학습 지원 시스템과 자기주도학습 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EBS가 운영을 주관하는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EBS가 보유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해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며, 학습코디네이터가 상주하여 학생별 학습 계획 수립, 학습 진도 및 성취도 관리, 학습 습관 형성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2026학년도 기준 중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번 개소식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형 자기주도학습 지원 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소방서, 반려동물 가정 전기화재 예방 홍보**

순창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가정을 중심으로 전기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위험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반려동물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기기 오작동 시제를 중심으로 예방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387건이 발생했으며, 전기레인지·인덕션 오작동, 콘센트와 전선 손상 등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이 전기기기의 버튼을 눌러 발열부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털·배설물이 콘센트로 유입돼 누전이 발생하는 사례, 전선을 훼손해 합선·단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순창소방서는 실제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27년 헌신의 마침표, 후학 사랑으로 있다**

전북대 김현숙 명예교수  
퇴임과 함께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27년간 재직하며 학문 연구와 지역·국가 차원의 공간·도시 정책 발전에 헌신해 온 김현숙 명예교수가 퇴임을 기념해 후학 양성과 학과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오랜 시간 몸담아 온 학과와 후학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퇴직과 함께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다. 기부금은 도시공학과와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숙 명예교수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과 활동을 이어나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도시공학과는 "학과의 성장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현숙 명예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과 공공적 가치가 교육과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학과 구성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동시에, 도시공학과가 지향해 온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김현숙 명예교수는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교육과 연구는 물론 학과 발전 전반에 헌신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재직 기간 동안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건축·국토·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전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 제3대 청장으로 재직하며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새만금 기본계획의 통합·연계 전략을 주도해 국가적 공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정읍 입암면, 새해 맞아 경로당 41개소 순회**

정읍시 입암면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까지 두 달간 관내 경로당 41개소를 순회하는 현장 소통 행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면은 이 기간 동안 정읍시의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면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생회복지원금 홍보에도 주력한다. 시는 1월 19일부터 시민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입암면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 신청 시기가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재병 면장은 "이번 방문은 마을 주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업체수 처리기술 연구·실증 '맞손'**

새만금청, 국내 연구기관 등과 MOU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5일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업체수 처리 기술 연구와 실증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연구·실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이차전지 고압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기술개발, △고압폐수 생물학적 처리 기술개발, △고압폐수 내성 미생물 기반 생물학적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개발, △업체수의 생태독성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세분화하여 2026년~2030년까지 추진된다. 새만금청은 연구·실증 여건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연구기관은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기업에 발생하는 폐수를 기반으로 연구 과제별 안정적인 연구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만금청과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등



기술협용과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상호 약속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도 해당 기술 개발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만호 기자



**전기홍 고창군 부안면장, 주민 소통 간담회**

전기홍 고창 부안면장이 지난 14일부터 관내 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군정 홍보와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좌담회는 주민들에게 '고창군 주요사업'을 알리고, 동절기 한파·대설 대비 안전관리 요령 안내를 비롯해 최근 겨울철 화재 관련하여 면민들의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마을 행복 지킴이와 경로당 보조금 지원현황(운영비, 한시방·난방비, 양곡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 있다. 전기홍 부안면장은 "병오년 새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살기 좋고 행복한 부안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나눔·연대 실천... 고창군청 직원들, 이웃돕기 성금 기탁**

고창군청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고창군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고물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가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따뜻한 명절을 지원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은 매년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웃돕기 성금·성품 기탁을 비롯해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이어지며, 군민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고창군수는 "공직자가 먼저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행정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굿모닝보청기 김제센터, 어르신에 보청기 기증**

김제시는 굿모닝보청기김제센터(센터장 윤진숙)가 김제노인종합복지관(노기보 관장) 이용 어르신에게 맞춤형 보청기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청기 기증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이자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난 12일 진행됐으며 김제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A 어르신을 선정했다. A 어르신은 "보청기 덕분에 사람말소리가 훨씬 또렷하게 들린다"며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어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진숙 굿모닝보청기김제센터장은 "청력 문제는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증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노기보 관장은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기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나눔 활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종호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의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2025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결과 평가와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과제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남원시, 사회연대경제기업 간담회**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이재명 정부 12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과 연계해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은 마을기업, 14일은 사회적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과 2026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2025년에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12개소에 28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규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1개소 선정, 각종 박람회 출품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행안부 고도화 마을기업 2개소 선정, 전북자치도 고도화 마을기업 1개소 선정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김제농기센터, 토마토빨나방 방제 방제물품 지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토마토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빨나방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4,000만원을 투입해 검역해충인 토마토 빨나방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반재배 농가에는 방제약제를 지원한다. 친환경 재배 농가에는 교미교란제, 예찰·방제 트랩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며, 오는 3월 중 토마토빨나방 예찰·방제 물품을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김제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월 1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기술보급과 특화작목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